



스위스 탐구 생활: 레만호 지역.

요런 재미도 있다

누구나 여행하는 방식 말고
 좀 더 특별한 체험 가능한 여행법
 빙하 산의 짜릿한 알파인 코스터
 골든패스 파노라마가 더 맛있어지는 방법
 시옹성에서는 와인 하이킹을
 로컬들로 북적대는 올림픽 박물관 주말 브런치
 와인 마시며 포도밭 바라보는 호수 크루즈
 애나 어른이나, 까이에 초콜릿 공장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 순위가 바로 여행이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 곧 떠날 날을 준비하는 의미로 스위스정부관광청은 한국 여행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위스 여행지의 숨은 묘미를 하나씩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더 다채롭고 깊이 있게 곧 다시 스위스를 여행하기를 기대하며, 그 첫 번째 지역으로 레만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지역 및 핫 스팟을 소개한다.

1. 글래시어 3000(Glacier 3000)

레만호 지역(Lake Léman Region)에도 알프스 산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해발고도 3,000m 나 되는 봉우리 주변으로 4,000m 급 알프스 산이 장관을 이룬다. 바로, 글래시어 3000 이라는 산이다. 케이블카, 건축, 모험, 알프스 산의 경치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이 산에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빙하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빛과 영성의 건축가로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Mario Botta)가 설계한 산 정상 케이블카역은 언뜻 보기만 해도 장관임을 알 수 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짓고 있는 “남양성모성지대성당” 건축가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 그가 만든 케이블카는 독특하다.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눈 덮인 24 개 이상의 거대한 4,000m 급 봉우리들이 곧 모습을 드러낸다. 아이거(Eiger), 뮌히(Mönch), 융프라우(Jungfrau), 마테호른(Matterhorn), 그랑 콕뱅(Grand Combin)은 물론 저 멀리 프랑스 몽블랑(Mont Blanc)까지 볼 수 있다.

찾아가는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다.

몽트뢰역에서 그슈타드(Gstaad) 혹은 레 디아블러레(Les Diablerets)까지 기차로 가면 스위스의 명물 노란 포스트 버스가 바로 연결된다. 포스트 버스를 타고 콜 뒤 피용(Col du Pillon)에서 내리면 정상으로 향하는 케이블카가 나온다.

요금은 성인 CHF 65, 청소년 CHF 59, 어린이 CHF 43 이다. (2020 년 기준)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케이블카 요금에서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글래시어 3000 은 빙하로 이뤄진 산인만큼,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1) 티쏘 피크 워크(Peak Walk by Tissot)

두 산봉우리를 잇는 세계 최초의 도보 현수교가 아찔하게 출렁댄다. 스위스 시계 회사, 티쏘(Tissot)가 기여해 만들어진 출렁다리로, 잊지 못할 체험을 할 수 있다.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봉우리와 이보다 5m 가량 낮은 봉우리를 연결하는데, 낮은 봉우리까지 가면 아찔한 전망대가 나온다. 총 길이 107m, 너비 80cm의 출렁다리는 마터호른, 몽블랑, 아이거, 윈히, 융프라우 봉우리의 절경을 펼쳐낸다. 특히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파노라마가 대단하다. 이 출렁다리 이용료는 무료이며, 날씨에 따라 폐쇄될 수 있지만, 연중 개방된다.

2) 알파인 코스터(Alpine Coaster)

알파인 코스터를 타고 짜릿한 빙하 체험을 해볼 수 있다. 520° 회전, 10 개 넘는 급커브, 6 개의 웨이브, 3 개의 점프가 등장하는 알파인 코스터는 총 1km 나 되는 길이를 최대 시속 40km로 질주해 지루할 틈이 없다. 빙하 풍경 속에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체험을 할 수 있고, 땅 위로 6m 나 솟구치는 짜릿함을 느껴볼 수 있다. 브레이크가 있어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원하는 횟수만큼 탈 수 있다. 단, 앞 사람과의 거리를 최소 25m 유지해야 하며, 중간에 멈추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물론,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한다. 5월부터 9월까지 매일 오전 9:15 부터 오후 4:30 까지 운영되며, 날씨와 바람에 따라 운영이 중지될 수 있다. 1 회 탑승권은 1 인 CHF 9 이며, 5 회 탑승권은 CHF 36 이다.

3) 스노우 버스(Snow Bus)

스노우 버스가 대체 뭘까? 빙하 지대 투어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차량으로, 탱크와 제설차를 합쳐놓은 모양이다. 애벌레처럼 꿈틀꿈틀 움직이며 빙하 지대 탐사에 나선다. 최대 20 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자기 자리에 편하게 앉아 빙하 지대 저 멀리까지 탐험해 볼 수 있다.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즐거운 시간이다. 보통 5 월 중순부터 10 월 중순까지 운행된다. 그룹 여행자뿐만 아니라, 개별 여행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구간에 따라 CHF 15 혹은 CHF 20 이다.

www.glacier3000.ch

2. 골든패스(GoldenPass) 파노라마 열차

스위스 독어권과 불어권을 연결해 주는 최고의 파노라마 기차, 골든패스는 호수와 언덕, 전나무 숲을 따라가며 스위스의 다채로운 문화 유산을 하나하나 보여준다. 루체른(Luzern)에서 시작해 몽트뢰(Montreux)까지 이어지는 기차 여정은 세 구간으로 나뉜다. 철로의 너비가 달라서 기차를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번의 환승이 필수적이다. 기차 환승으로 발생하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이 여정 전체를 한 번 꼭 체험해 봐야 할 이유는 각 구간마다 저마다 많다. 세 구간으로 이뤄진 골든패스 여정을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하면서도 최고로 즐겨볼 요령을 안내한다.

1) 루체른(Luzern) – 인터라켄 오스트(Interlaken Ost)

“루체른 – 인터라켄 익스프레스(Luzern-Interlaken Express)”라고도 불리는 이 구간의 열차는 루체른의 필라투스(Pilatus) 산, 리기(Rigi) 산, 뷔르겐슈톡(Bürgenstock) 산을 등 뒤로하고 차츰 고도를 높여 브뤼니크 고개(Brünnigpass)를 넘어 인터라켄 까지 이어진다. 이 구간은 “호수 루트”라고도 불리는데, 자르넨 호수(Sarnensee), 룽게른 호수(Lungernsee), 브리엔츠 호수(Brienzersee)를 따라가며 절경을 선사한다. 반짝이는 호수에 거의 달을 듯 말 듯하게 달려 나가는 빨간 기차가 감탄스럽다. 중간에



하차하면 기스바흐 폭포(Giessbach), 브리엔처 로트호른(Brienzer Rothorn) 산, 발렌베르그(Ballenberg) 야외 박물관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파노라마 차창 밖으로 이 근사한 풍경을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맛있는 식사에 품미 좋은 음료 한 잔과 함께 미식 투어를 해보는 방법이다. 여정이 2 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여유로운 식사를 즐길 수 있다. 풍성한 아침 식사 특히 승객들에게 인기인데, 정기적으로 변하는 메뉴부터 스위스 치즈를 골고루 맛볼 수 있는 테마 메뉴까지 다채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식당칸의 자리를 꼭 확보하고 싶다면, 좌석 예약을 미리 할 수 있다. 좌석 예약비는 CHF 10 인데, 비수기에는 CHF 8 이다. 좌석 예약비에는 CHF 5 상당의 식음료 쿠폰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알차다. 스위스 전국 기차역 티켓 창구나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온라인 좌석 예약:

<https://reservation.goldenpass.ch/reservation/reservation/reservation/reservation/reservation/reservation/reservation/reservation/reservation/reservation/f?p=151:1:3664270617983523::NO::RELOAD:N>

2) 인터라켄 오스트(Interlaken Ost) – 츠바이짐멘(Zweisimmen)

“베엘에스 레기오 익스프레스(BLS RegioExpress)”라고도 불리는 이 구간은 로컬 기차로 운행되는 구간이다. 슈피츠(Spiez) 성, 오버호펜(Oberhofen) 성, 툰 성을 지나 툰(Thun) 호수를 뒤로하고, 약 1 시간 정도의 여정 동안 창 밖으로 4,000m 급 알프스 봉우리, 전나무 숲, 초록 목초지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처럼 전형적인 스위스의 시골 풍경이 펼쳐진다.

이 구간에서는 식음료를 즐길 수 없다.

3) 츠바이짐멘(Zweisimmen) – 몽트뢰(Montreux)

약 1 시간 45 분에 걸쳐 이어지는 이 구간은 두 가지 다른 모양의 기차로 운행되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기차를 골라 타보는 재미도 있다. 골든패스 파노라믹(GoldenPass Panoramic)과 골든패스 클래식(GoldenPass Classic)이 두 개의 기차 이름이다. 츠바이짐멘(Zweisimmen)에서 출발한 프리미엄 파노라마 기차는 몽트뢰(Montreux)를 향해 달린다. 이 파노라마 여정을 위해 풍경이 디자인된 듯한 기분에 젖게 되는데, 사랑스런 풍경이 연달아 등장한다. 초록 들판 위에 소가 풀을 뜯고, 질푸른 초원이 펼쳐지고, 전통 목조 가옥이 샬레가 완만한 언덕에 포근히 기대어 있고, 이 모든 것이 웅장한 알프스 봉우리와 대조를 이룬다. 최고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다. 몽트뢰 직전에 햇살이 부서지는 레만(Léman)호의 환상적인 뷰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기차는 여유롭게 언덕을 따라 구불구불 내려가고, 레만호 지역의 지중해풍 분위기가 물씬 풍겨온다.

이 구간에서도 특별한 미식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골든패스 파노라믹에서는 “와인, 커피, 비어, 미네랄 워터”를 외치며 복도를 돌아다니는 서비스 카트가 운행된다. 널찍하고 폭신한 좌석에 앉아 원하는 음료를 즐길 수 있다. 샌드위치나 치즈 플래터 같은 간단한 식사 및 안주류와 함께 원하는 음료를 좌석까지 가져다준다.

19 세기 말 벨에포크(Belle Époque) 양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골든패스 클래식에서는 럭셔리한 좌석에 왕처럼 앉아 샴페인 한 잔을 훌쩍이며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알프스의 풍경을 화려하게 즐길 수 있다. 나무 보드에 갖가지 치즈와 햄, 건조육을 정성스레 차려낸 특별 메뉴를 좌석까지 가져다준다.



레만(Léman)호 지역의 포도밭에서 만든 와인 한 잔에 완벽한 안주가 되어준다. 예약을 권하는데, 식사는 CHF 23, 좌석 예약과 식사는 CHF 31 이다.

4) 루체른부터 몽트뢰까지, 전 구간을 더 편리하게

기차를 환승하면서 힘들게 무거운 짐까지 끌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 전날 오후 7 시까지 기차역 수하물 배송 창구에 짐을 부치면, 다음 날 아침 9 시 이후에 목적지에서 짐을 찾을 수 있다. 티켓 소지 시 수하물 하나당 CHF 10 이다. 짐을 굳이 부치기 싫다면, 좌석 아래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트렁크를 놓아서 좌석 밑에 보관하면 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미리 mobil@sbb.ch에 도움을 요청해 두어도 좋고, 현장에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좋다.

자전거 여행을 하는 이라면 골든패스와 연계하기 편리하다. 대부분의 골든패스 차량에 자전거를 직접 실을 수 있다. 단, 루체른과 인터라켄 사이를 운행하는 기차에는 자전거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도록 한다. 승무원의 안내를 따르면 된다. 자전거용 1 일 티켓은 CHF 18 이며,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CHF 12 다.

www.goldenpassline.ch

3. 몽트뢰(Montreux)의 시옹성(Château de Chillon)

시옹성은 레만(Léman) 호수의 제방에 자리한 바위 위에 있다. 물 위에 떠 있는 형상의 아름다운 고성은 스위스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건축물이다. 시옹성은 거의 4 세기 동안 사보이(Savoy) 왕가의 거주지이자, 통행세를 징수하는 거점으로 이용되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Byron)이 쓴 “시옹의 죄수”로 유명해진 시옹성의 지하에는 바이런의 자취가 남은 지하 동굴이 있다. 벽화와 연회장 및 원형 그대로 보존된 침실과 갑옷, 은 검 등 볼거리가 구석구석 가득하다. 시옹성에는 한글로 된 안내서가 있어서 한국인 여행자도 편리하게 감상이 가능하다.

볼거리 가득한 시옹성이지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시옹성의 레이블을 단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 세기 동안 시옹성에는 와인 셀러를 갖추고, 와인을 생산해온 역사가 있다. 2011년부터 이 전통을 되살려 “클로 드 시옹(Clos de Chillon)”이라는 레이블로 와인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총 40 여 개의 배럴이 성 지하 공간에 자리를 잡았다. 바이런의 시, “시옹의 죄수”에 등장하는 주인공, 프랑소아 보니바르(François Bonivard)가 갇혔던 감옥에서 멀지 않은 방이다.

클로 드 시옹은 그랑 크뤼(Grand Cru) 급으로, 와인 생산자이자 판매자인 앙리 바도(Henri BADOUX SA - VINS)에 의해 시옹성 내에서 숙성되고 병입 된다. 시옹성의 전통, 품위, 품질을 반영하는 시옹성 재단의 다채로운 활동 중 하나다.

라보(Lavaux) 원산지 증명을 받은 그랑 크뤼로, 화이트는 샤슬라(Chasselas), 레드는 피노 누와 및 가메이 품종을 사용하고 있다. 시옹성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밭의 총면적은 12,500m²으로, 라보에 자리해 있다. 레만호 언덕배기 위, 몽트뢰의 온화한 기후 속에서 포도알이 영근다. 와인 통합 생산(IPW)으로 잘 알려진 지속 가능한 재배 기술을 적용해 친환경적인 포도를 재배한다. 앙리 바도의



매니저이자 와인 전문가, 다니엘 뒤포(Daniel Dufaux)가 고심해서 제조한 와인은 시옹성의 기념품 숍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시옹성을 다 구경한 뒤, 좀 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싶다면, 시옹성 뒤편으로 연결되어 있는 호숫가 길을 따라 하이킹을 즐겨 보면 좋다. 호수를 따라 걷다 보면 시옹성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밭도 나오고, 로컬들이 여름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시옹성을 바라보며 수영도 하고, 바비큐도 하는 장소도 나온다.

시옹성에서 몽트뢰 카지노까지는 걸어서 40 분 정도 소요된다. 테리테(Territet)에서 유람선을 타고 몽트뢰 선착장까지 가도 좋고, 테리테에서 도로 쪽으로 올라가면 1 번 버스를 탈 수 있는 정류장도 나온다. 몽트뢰에서 시옹성을 향한 유람선 탑승도 짧지만 추천한다.

www.chillon.ch

4. 로잔의 올림픽 박물관(Olympic Museum)

레만호반의 도시, 로잔(Lausanne)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있어, '올림픽의 도시'라 불린다.

레만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는 로잔은 호수와 중세 구시가지의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로잔의 호반, 우시(Ouchy) 지구에는 올림픽 박물관이 자리해 있다. 가장 근접한 방식으로 올림픽을 체험하고, 마치 선수가 된 것처럼 올림픽 정신을 생생하게 느껴보고,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올림픽 경기 역사를 알아보는 것까지, 최신 컴퓨터 기술과 오디오비주얼 미디어 덕분에 로잔 올림픽 박물관에서 이 모든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박물관 체험도 특별하지만, 호숫가에 자리해 있는 데다 박물관 내에 공원까지 조성되어 있어, 근사한 풍경을 선사하는 스팟이기 때문에 로컬들이 웨딩으로 택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런 풍경을 여행자도 쉽게 즐겨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박물관 내 레스토랑이다. 올림픽 박물관 꼭대기 층에 자리 잡은 톰 카페(Tom café)는 강렬한 색감으로 현대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장소에 맞게 스포츠를 테마로 한 아이디어가 곳곳에서 반짝인다. 로컬들 사이에서는 로잔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테라스 석으로 꼽히는 톰 카페의 야외 테이블은 레만호와 알프스의 화려한 풍경을 선사해 언제나 경쟁이 치열하다. 박물관을 돌아본 후, 혹은 돌아보기 전 톰 카페에 들러 풍경과 함께 허기를 채우며 음료를 한 잔 즐기길 좋다. 스포츠 팬이라면, 바 주변에 전시 되어 있는 전설적인 올림픽 관련 물품들에 매혹될 것이다.

톰 카페에서는 셰프가 직접 만든 계절 특선 메뉴는 물론, 올림픽 박물관 테마를 적용한 어린이 메뉴, 스위스 및 국제 와인, 탁월한 가격에 제공되는 오늘의 메뉴를 포함해 다채로운 메뉴를 갖추고 있다. 그룹용 좌석도 마련되어 있다.

사실, 로컬들에게 인기 있는 것은 주말 브런치다.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이면 톰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려는 로컬들로 레스토랑이 북적인다. 각종 페이스트리, 빵, 팬케이크, 소시지, 베이컨, 과일 및 요거트를 포함한 아침 식사 메뉴는 물론, 샐러드와 건조육, 파스타, 육류 및 생선류가 포함된 메뉴와 각종 디저트도 즐길 수 있다. 오전 11 시부터 오후 2:30 까지 즐길 수 있으며, 성인 1 인당 CHF 45 이고,



만 12 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나이 한 살 당 CHF 2 를 내면 된다. 톨 카페는 박물관 입장권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www.olympic.org

5. 레만호(Lac Léman) 유람선

레만호는 중앙 유럽 내륙 호수 중 가장 큰 것으로, 북쪽 면은 스위스에서, 남쪽 면은 프랑스에 속해 있는 호수다. 총면적이 580km², 길이가 73km 에 달하는 바다 같은 호수다. 이 호수를 가장 잘 탐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유람선에 오르는 것이다. 호수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는 유람선이 여러 가지 운항되는데, 승객들은 스위스 쪽 항구는 물론, 프랑스와 면한 항구에서도 자유로이 배에 오르내릴 수 있다.

벨 에포크 스타일의 유람선은 140 년 동안 아름다운 항해를 해왔다. 배 위에서 보는 풍경은 항구와 성(시옹/Chillon, 모르쥬/Morges, 롤/Rolle, 이부아/Yvoire 등)에서 시작해 포도밭을 넘어 스위스와 사보이(Savoyan) 알프스의 눈 덮인 봉우리까지 뻗어간다. 보트 선착장은 여러 도시 투어(제네바/Geneva, 로잔/Lausanne, 몽트뢰/Montreux, 브베/Vevey) 등 다양한 여행의 출발점이 되어준다.

여러 유람선 중에서도 특별한 테마가 있는 크루즈가 운항되는데, 라보 투어 & 와인(Lavaux Tour & Wine)은 여행자들도 한 번 체험해볼 만하다. 2007 년부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된 라보의 포도밭 언덕이 한눈에 들어오는 여정으로, 호수와 알프스, 포도밭의 풍경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언덕 위에 웅기종기 모여있는 매력적인 포도밭 마을이 정겹다. 선상에서 향기로운 라보 와인을 시음할 수 있어, 오감을 자극하는 여정이 되어준다. 티켓에는 1 등석 좌석과 라보 와인 2 잔이 포함되어 있다.

2020 년 6 월 21 일부터 9 월 6 일까지 매일 운항하며, 로잔(Lausanne)의 우쉬(Ouchy) 선착장에서 15:00 에 출발해 16:20 에 돌아온다. 라보의 포도마을, 뤼이(Pully)에서는 15:10 에 출발해 16:10 에 돌아온다. 성인은 CHF 29 이며, 스위스 트래블 패스 1 등석 소지 시, CHF 10 이다. 패스 종류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추가 비용 CHF 10 을 내면, 로컬 특선 안주도 맛볼 수 있다.

크루즈 이용 72 시간 전에 다음 페이지나 선착장에서 예약해야 한다.

<https://www.cgn.ch/en/lavaux-tour-wine.html>

6. 라 메종 까이에(La Maison Cailler) 초콜릿 공장

몽트뢰(Montreux)에서 “벨 에포크” 양식의 기차에 올라 초콜릿의 나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 바로, 골든패스(GoldenPass)에서 운행하는 초콜릿 기차다. 초콜릿 기차를 타면 하루 종일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편리한 투어를 할 수 있지만,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브록(Broc)에 있는 라 메종 까이에 초콜릿 공장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다.

라 메종 까이에에는 달콤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다채로운 방식으로 초콜릿 공정에 대해 체험해 보고, 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 박물관 투어에서 초콜릿의 역사를 알아보고, 카카오가 어떻게 스위스 최고의 초콜릿으로 탄생하는지 지켜볼 수 있다. 초콜릿 워크숍에서는 프로페셔널 쇼콜라티에가



직접 마법 같은 초콜릿 공정을 보여준다. 아이들도 참가할 수 있는 초콜릿 워크숍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도 있다.

메종 까이에에서는 초콜릿의 역사와 비밀을 보여 준다. 생산라인을 따라 까이에의 초콜릿 생산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데, 짧은 초콜릿 시식도 포함되어 있다.

부티크와 카페에서는 까이에가 만드는 모든 초콜릿을 포함해 티셔츠와 포스터, 머그잔도 판매하는데, 기념품 쇼핑이 그만이다. 까이에 초콜릿으로 만든 핫초콜릿 한 잔을 마셔 보아도 좋다. 초콜릿을 곁들여 마시는 카푸치노 한 잔도 풍미가 좋다. 어린이 놀이터도 있어 가족 단위 방문자들에게 인기다.

매일 문을 여는데, 4 월부터 10 월까지는 오전 10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11 월부터 3 월까지는 오후 5 시까지 개방되며, 입장은 종료 시각 1 시간 전에 해야 한다.

입장료는 성인은 CHF 15, 만 16 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무료다. 기차로, 브록-파브리크(Broc-Fabrique) 역에서 하차하면 된다. 골든패스에서 운행하는 초콜릿 기차를 타도 좋다.

www.cailler.ch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